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 • 신뢰금융
	<b>보도</b>	<b>2019.10.31.(목) 08:00부터</b>	배포	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90)	<b>담 당 자</b>	차 영 호 사무관 (02-2100-2692)	

## **제 목 : 은성수 금융위원장, 제2회 「회계의 날」 기념식 참석**

### **1. 개요**
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'19.10.31(목), 한국공인회계사회, 대한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제2회 「회계의 날」 기념식에 참석
- 이번 「회계의 날」 부터는 회계발전 유공 관련 정부포상이 신설되어 총 7명\*에게 정부포상을 수여

\* 훈장 1명, 대통령 표창 3명, 국무총리 표창 3명

#### <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 개요 >

- (일시/장소) '19.10.31(목) 8:00 /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홀
- (참석자) 은성수 금융위원장, 민병두 정무위원장, 최재형 감사원장, 정관계 및 회계업계 인사와 회계발전유공 수상자 등 약 500명

### **2.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 내용**
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회계의 날의 의미와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
- 회계의 날은 회계개혁법인 「新외부감사법」이 제정·공포된 날 ('17.10.31일)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고, 올해가 두 번째 기념일
- 특히, 기업의 언어인 회계정보는 사회 전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,
  - 회계정보가 왜곡되는 경우 우리 경제·사회의 투명성 저하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

-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해 기업, 감사인 등에게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자발적 참여를 주문하면서 아래 말씀을 전달

### < 기업 >

- 이번 회계개혁으로 기업의 일부 비용 부담 증가가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,
  - 회계개혁 실행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회계당국이 적극 청취하여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점을 언급

### <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>

- 회계업계는 영업위주가 아닌 감사 품질 개선에 집중함으로써 이번 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며,
  - 공인회계사들 또한, ‘자본시장의 파수꾼’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책임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

### < 회계당국 >

- 2011년부터 원칙중심(Principle-Based)의 국제회계기준(IFRS)을 채택하고 있지만,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회계처리 적용 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큼
  -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도록, 지난 6월 발표한 「회계감독 선진화 방안」 내용대로
    - 금융위를 비롯하여 금감원·회계기준원이 기업 등의 질의에 대해 회계기준 적용 방법 등을 적극 제공해 나갈 것임을 밝힘

[별첨] 제2회 「회계의 날」 금융위원장 축사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</p>	<p>금융위원회 대 변 인  <a href="mailto:prfsc@korea.kr">prfsc@korea.kr</a></p>	 <p>넓게 들겠습니다        바르게 알려겠습니다</p>
--	---	--	---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